

휴대전화용 초소형 칩
LED 개발

광전자

광전자가 초소형 '1005 칩 발광다이오드(LED) 램프(S1310 시리즈)'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광전자는 이 제품이 기존 '1608 칩 LED 램프'보다 실장면적과 중량이 37.5% 이상 감소했고 발광량은 50% 이상 더 밝아 소형·박막화하는 이동전화의 키패드 발광용으로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블루·레드·그린 등 다양한 컬러 칩을 이용, 이동전화의 안테나에 실장해 수신·발신시 발광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를 겨냥한 아이디어 제품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부터 S1310의 본격 생산에 들어간 광전자는 연말까지 월 1000만개의 양산 체비를 갖춰 그동안 국내 이동전화시장에서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칩 LED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가전제품 주치의 제도
첫 도입

대우전자

가전제품에도 '주치의' 제도

가 첫 도입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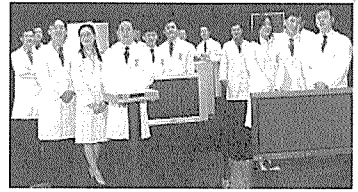
대우전자는 3명의 가전전문(e-Dr:Electronic Doctor)가 제품을 끝까지 종합 관리해주는'전자전문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구개발, 서비스, 마케팅 등 부문별로 미리 선정된 3명의 전자전문(e닥터)가 마치 주치의처럼 실명으로 각 제품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도. 즉 기존 가전 서비스가 서비스 전담직원에 의한 AS만 국한된데 반해 대우전자의 e닥터 서비스는 개발에서부터 판매·서비스에 이르는 제품 유통 전과정의 부문별 전문가들이 모두 나서 직접 고객과 접촉,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우전자는 4월부터 직접 개발·생산·판매하는 주력 제품의 전모델에 3명의 e닥터 사진과 이름이 표시된 'e닥터 카드'를 부착, 고객들이 서비스 신청뿐 아니라 제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핫라인 직통전화나 e메일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우전자는 제품별·분야별로 2~3명씩의 전문가를 엄선하고 서울 마포 본사 건물내 '전자전문 클리닉센터'를 개설, 4월 17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V마케팅 부문 e닥터의 차장



은 "대우전자가 워크아웃 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AS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며 "기업활동 및 제품생산 지속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품질 및 서비스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PDP 모듈·모니터등 공동
개발

대우전자-오리온전기

대우전자와 오리온전기는 최근 'PDP사업 공동추진'에 합의하고 제3세대 'New PDP 모듈'과 'PDP 모니터/TV'를 개발, 생산·판매하기 위해 5월부터 공동개발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개발은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내의 모듈(Module)원가를 40%가량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PDP 제품원가를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4월 공동개발팀 구성 ▲5월 설계착수 ▲9개월내 저코스트의 제3세대 PDP

모듈개발 ▲제3세대 PDP완제품의 12개월 내 개발등이다.

개발에 소요되는 PDP패널은 오리온전기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품은 대우전자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제품의 패널과 모듈은 오리온전기가 생산·공급하고, PDP완제품은 대우전자가 생산·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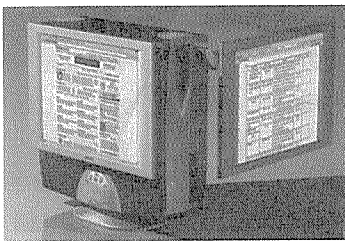
‘양화면 컴퓨터’
세계 첫선

듀오컴텍

PC의 앞뒷면에 2개의 액정화면(LCD)을 장착한 ‘양화면 컴퓨터’(사진)가 세계최초로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듀오컴텍은 펜티엄Ⅲ급 컴퓨터의 앞면과 뒷면에 각각 LCD 1개를 장착한 양화면 컴퓨터인 ‘듀컴(DOCOM)’을 개발, 오는 6월말부터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두사람이 2개의 액정화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상담 등을 진행하는 ‘듀



얼 디스플레이’ 기능 ▲1개의 화면으로는 사용자가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고 나머지 1개의 화면에는 광고, 공지사항 등을 띄워놓을 수 있는 ‘멀티 태스킹’ 기능 ▲두사람이 각각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하면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 워킹’ 기능 등 기존 컴퓨터에는 없는 세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두께가 19.5cm에 불과하고 1개의 컴퓨터로 2개의 컴퓨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사무실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앞면의 LCD는 상하방향으로 20도까지 조정할 수 있고 뒷면의 LCD는 상하 20도, 좌우 1백 80도까지 회전이 가능해 상담자와 고객이 편한 위치에서 1개의 컴퓨터로 자유롭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두께 9.9cm 차세대 벽걸이형
PDP TV 수출 ‘포문’

디지털디바이스

전자제품 전문업체인 디지털디바이스가 자체 기술로 차세대 벽걸이형 PDP TV를 개발하고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디지털디바이스는 42인치 디지털 PDP TV를 자체 기술로 개발,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양

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가 개발한 PDP TV는 두께가 9.9cm로 기존동급 프로젝션 TV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PC, DVD, VCR, TV, 디지털 세트톱박스 등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고 화면 안에서 두 화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PIP기능 등을 채택한 것도 특징이다.

고음질 입체음향을 재현할 수 있고 스피커 분리형으로 설계됐으며 모니터 무게는 33kg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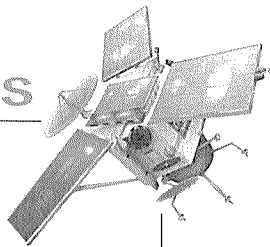
디지털디바이스는 이탈리아·영국업체와 1000만달러 어치 수출을 위한 샘플 승인절차를 진행중이며 중국 현지 가전업체와도 PDP TV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협상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디바이스는 96년 설립된 전자제품 전문업체로 디지털 TV, LCD 모니터,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VR), MP3 플레이어, 세트톱 박스 등 디지털 제품을 개발해 왔으면 지난 99년에는 10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LCD모니터시장 진출

삼보컴퓨터

국내 최대 PC제조업체인 삼보컴퓨터가 박막액정표시장치(TFT LCD) 모니터시장에 진출한다. 삼보컴퓨터는 지난해 말



완공한 노트북PC 생산라인인 안산 제 2공장에서 다음주부터 자체 개발한 모니터 생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KDS, 현대이미지케스트, 한솔전자 등이 주도해온 국내 TFT LCD 모니터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삼보컴퓨터 모니터를 공급해온 삼성, LG등도 타격이 예상된다.

삼보컴퓨터는 4월 중순 이후부터 생산에 착수, 내수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며 5월부터는 일본 현지 자회사인 소텍에 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우선 월 3000대 정도를 생산, 국내외에 공급할 계획이며 점차 물량을 확대, 소텍뿐 아니라 이머신즈, ODM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던 해외 메이저업체로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보는 우선 15인치 TFT LCD모니터인 'TGL 150'을 선보였으며 가격도 삼성이나 LG전자 등 경쟁 제품보다 10~20% 저렴한 79만9000원으로 책정, 공격적인 영업을 예고했다.

삼보컴퓨터 국내사업본부장은 "TFT LCD 모니터 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인데다가 노트북PC제조라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진출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TFT LCD 모니터는 LCD 패널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CDT 방식의 모니터 가격과 2.5배 내지 2배까지 격차가 좁혀졌으며 이에 따라 최근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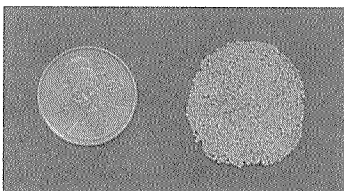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사는 올해 TFT LCD 모니터 시장이 가격하락에 힘입어 총 1400만대의 시장을 형성, 전체 모니터시장에서 처음으로 두자릿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리전극 MLCC 양산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세계에서 3번째로 1GHz 이상 고주파기용 구리(Cu)전극 적층세라믹칩콘덴서(MLCC)의 양산에 성공했다.

구리전극 MLCC는 일본 무라타와 교세라에서만 소량생산하고 있는 첨단부품으로 이번에 삼성전기가 구리제품을 조기출시함으로써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는 MLCC 시장에서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삼성전기는 현재 구리전극 MLCC를 월 1억개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시험양산중이며 국내외 업체에 샘플을 제공, 승인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양산한 구리전극 MLCC는 기존의 팔라듐이나 니켈전극 제품이 가지는 저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고주파기용 MLCC로 기존 MLCC보다 10배 이상 비싼 고가의 기술집약부품이다. 이 제품의 온도에 대한 용량변화는 ±30ppm 이하로 우수한 온도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1005(1.0×0.5mm)이고 용량은 10pF(1피코패러드는 1조분의 1패러드) 이하다.

삼성전기 그룹장은 "구리는 저항과 용량변화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타금속보다 녹는점이 낮고 고온에서 산화가 쉽기 때문에 고도의 제조기술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1000도 이하 저온소성기술과 원자재 조성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특허도 출원한 상태"라고 말했다.

플래시카드 사업 확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플래시카드 전문 회사인 美 렉사 미디어(Lexar

Media)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플래시카드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제휴로 ▲삼성전자는 렉사사가 보유한 플래시메모리 컨트롤러 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하고 ▲렉사사는 향후 10년간 플래시메모리 필요물량의 100%를 삼성전자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플래시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핵심 IP (지적재산)를 확보함으로써, 콤팩트플래시(CF) 멀티미디어카드(MMC) 메모리스틱(MS) 등 다양한 플래시카드 제품 생산을 본격화하여 출시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을 맡고 있는 황창규 사장은 “플래시메모리 제품의 핵심기술 확보로 고객사의 다양한 플래시메모리 제품군 요청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제휴는 플래시메모리 칩 공급업체와 플래시카드 제조 업체간 Win-Win 협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플래시메모리사업에서 지난해 4억1천만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7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플래시메모리란 전기적인 신호로 데이터를 지우기도 하고 기억시킬 수도 있는 롬(ROM)과 램(RAM)의 장점을 모두 지닌 제품으로, 전원을 꺼도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아 대규

모 저장장치,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PDA 등에 사용된다

블루투스 구동 SW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블루투스 기능 구현에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표준화단체인 '블루투스 SIG'로 부터 블루투스 SW의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TI사에 이은 2번째로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향후 거대한 시장이 예상되는 블루투스 응용제품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루투스 소프트웨어는 PC나 개인휴대단말기(PDA), 이동통신단말기에 블루투스방식의 무선 데이터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센터가 개발한 블루투스 소프트웨어는 보안기능이 강화된 1.1버전으로 윈도CE, pSOS, 리눅스, 윈도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와 모듈을 지원, 대부분의 블루투스 응용제품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1.0b 버전의 경우 호환성과 보안에 문제가 발생, 더 이상

시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 컴덱스와 ICE 쇼 등의 세계 전시회에서 노트북PC, 휴대폰, 웹패드 등의 블루투스 제품에 적용에 선보인 바 있다.

이 회사는 이번 SW 기술은 근간으로 향후 IMT2000, 사무실내의 무선으로 LAN에 접속하는 기술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중에 블루투스 모듈을 탑재한 노트북PC,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을 국내의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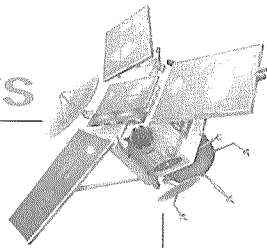
블루투스는 모듈이 5달러선 밑으로 떨어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05년에는 블루투스 모듈이 50억달러, 관련 반도체 시장은 4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플립칩 패키징기술 국산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차세대 고속 반도체 제품용 패키지 기술인 플립칩 패키징 기술을 독자 개발, 이를 적용한 16Mb DDR S램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플립칩 패키징은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기 위해 금선을 사용하는 기존의 와이어본딩 방식과는 달리 반도체 칩을 기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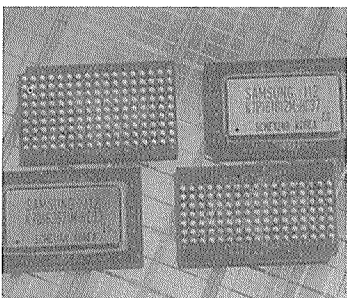


에 직접 부착하는 기술로 300MHz 이상으로 빠르게 작동하는 반도체 제품에 쓰인다.

특히 다층기판 설계기술, 접합 기술(bumping), 플립칩 조립 기술, 제품 테스트 기술, 신뢰성 기술 등 다양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핵심 패키지 기술이 요구돼 개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외부도움 없이 이 기술을 개발해 플립칩에 대한 기술기반을 확고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플립칩 패키지 기술을 적용한 플라스틱볼 그리드어레이(PBGA) 800Mbps 16Mb DDR S램 샘플을 시스템 업체에 공급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해 서버, 워크스테이션, 네트워크 시스템 등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1Gbps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플립칩 패키지 기술을 CPU, 고속메모리, 다핀 로직, 고주파(RF) 칩 등 초고속 동작속도가 필요한 제품에 폭넓게 응용할 예정이다.



전해콘덴서 생산라인
中 청도공장으로 추가 이전

삼영전자

삼영전자는 상대원동 신공장으로 설비를 이전하면서 알루미늄 전해콘덴서 생산라인 일부를 중국 청도공장에 추가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범용 콘덴서 중 5~8파이 콘덴서의 월 6000만개 생산라인을 비롯해 10~22파이 900만개, 2~3파이 200만개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옮기는 한편 상대원 공장에는 280억원을 투자해 증설중인 칩전해콘덴서 생산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5월에 설비이전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삼영전자의 상대원동 신공장은 대지 2만3000평에 1만 5000평 넓이로 칩전해콘덴서를 비롯한 대용량 알루미늄 전해콘덴서의 생산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2.5세대 이동통신 PDA
세계 첫개발

세원텔레콤

세원텔레콤은 모바일미디어텍과 공동으로 2.5세대 이동통신인 CDMA2000-1X (IS-95C)용 PDA(개인휴대단말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말기(모델명 Strata5000)는 기존 데이터통신 기능외에 음성전화까지 가능하다. 특히 데이터통신 속도가 최대 1백 44Kbps급으로 빨라 영상도 전송할 수 있다. 2.5세대용 PDA가 개발되기는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세원은 설명했다.

이 PDA는 4인치 컬러 TFT-LCD(박막액정 표시장치)를 채택했으며 PC카드 기능을 확장해 바코드 리더 및 교통정보단말기, 영상전화, 디지털카메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세원텔레콤은 "유럽형 2.5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GPRS(일반패킷 무선서비스)용 제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슬림형 QFP 패키지 출시

엠코테크놀로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는 기존의 표준 QFP(Quad Flat

Pack)패키지보다 열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월등히 우수한 '익스포즈패드' LQFP(Low profile Wvad Flat Pack) 패키지를 출시한다.

이 제품은 기존 3.3mm인 QFP 패키지의 높이를 1.4mm로 낮췄고, 낮은 만큼 연결 금선의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전기적으로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보이스포털 솔루션 개발

SL2

음성정보기술(SIT) 업체인 SL2는 전화망을 통해 웹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보이스포털 구축 솔루션인 '보이스포털 빌더'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포털 빌더는 전화망 상에서 콘텐츠 포털서비스가 가능해 웹상의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전망이다.

이 제품의 요소기술은 자동응답 시스템(ARS), 음성합성(TTS), 대화식음성응답(IVR), VXML의 4가지로 구성되며, 양질의 콘텐츠를 전화망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HTML기반의 웹콘텐츠는 GUI VXML 에디터에 의해 재편집된 후 IVR서버와 연동돼 전화망과 연결되고, ARS과

TTS서버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웹상에서 도메인주소를 찾아 정보를 얻는 원리와 유사하게 전화망 상에서 특정 전화 번호로 원하는 정보를 음성인식과 음성합성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전화를 통한 과금 수익으로 콘텐츠 유료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한편, 사용자 측면에서 PC가 없이도 휴대폰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L2 사장은 "웹상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임대형태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최초 초미세 발포 사출 성형기술 개발

LG전자

LG전자는 연세대 차성운 교수팀과 산학협동으로 기존 발포 대비 10배 정도 미세하고 경량화 등이 가능한 첨단 플라스틱을 제조할 수 있는 초미세 발포(MCPs:Micro-Cellular Plastic Process) 사출성형 생산기술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 가전 제품 생산라인에 본격 적용키로 했다.

이번 초미세 발포 사출기술은 美 MIT대학에서 처음 개발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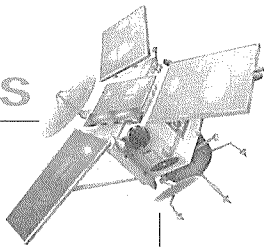
일부 단순 플라스틱 제품에 최근 사용돼 왔으나, 첨단 전자제품생산에 적용된 것은 이번 LG전자가 처음이며, 미국의 휴렛팩커드(HP)사가 프린터 내장용 플라스틱에 사용을 검토 중에 있다.

LG전자가 개발한 초미세 발포 사출성형기술은 기존 사출성형기술에 미세한 기포를 갖는 플라스틱 공법을 응용한 것으로 이를이용한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시간 단축 ▲제품의 경량화 ▲재료비 절감 ▲성형후 변형 최소화 ▲단열성 및 방음성 우수 등의특성을 갖고 있어 전자제품용 플라스틱 이외에도 자동차용, 모든 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은 물론 심지어 단열-방음용 건물의벽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초미세 발포 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은 기존 대비 최대30%의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효과도 갖고 있어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초미세 사출 플라스틱을 전자제품에 이용하면 경량화, 단열성 등 기술적 특성 때문에 최경량 노트북PC, 고효율 냉장고, 고음질 TV스피커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LG전자는 우선 이번 초미세 사출 성형기술을 에어컨 및 TV 생산라인에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노트북PC 등 다른 생산라인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LG전자가 TV 생산라인에서 테스트한 결과 29인치 TV스피커 박스의 경우 16% 정도의 무게가 줄었으며, 생산시간도 25%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TV 스피커박스 적용에 앞서 그 동안 기술적 난제였던 발포 성형에서 용융상태의 플라스틱이 굳으면서 발생하던 가스흐름자국 발생 현상을 완전 방지함으로써 기존 외장용 정밀 전자제품 플라스틱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통념을 깨고 전자제품 적용에 처음 성공하게 됐다.

한편, 이번 초미세 발포 사출 기술은 지난 '97년부터 美 TREXEL사가 이 MCP Process에 대한 원천 기술을 美 MIT대학으로 부터 도입하여 일반적인 플라스틱 성형 기술인 압출, 사출성형등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국내에서는 LG전자와 연세대 차성운 교수팀이 주도하여 TREXEL-Korea社 설립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4월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이 회사는 원천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한국(북한 포함)을 대상으로 확보하게 된다.

LG전자가 대당 가격이 4,400만원이 넘는 세계최고가 가전제품인 60인치 디지털 PDP TV를 처음으로 대량 수출한다.

이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가전산업에 뛰어든 지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선진시장에서 일본업체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본격적인 가전제품군이라는 측면은 물론 ▲세계최대 60인치급 디지털 벽걸이TV 세계최초 출시 ▲반도체 이후 한국의 수출을 주도할 대표 상품 등장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LG전자는 최근 유럽최대의 PDP 판매업체인 독일 콘락(Conrac)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향후 3년간 3만대 규모의 60인치-42인치 등 PDP TV에 대한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는 연초부터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 5개 국가의 주요 PDP 전문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나코에서의 딜러컨벤션 등 '귀족(Noble) 마케팅'을 전개해 독일 콘락(Conrac)사를 비롯한 50여 업체들을 주요 거래업체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바 있고, 지난 3월말 독

일 세빛(CeBIT 2001) 전시회에서 PDP TV가 큰 주목을 받은 이후 계약이 급진전됐다.

LG전자는 6월부터 이번에 수출한 60인치 PDP TV 중 1차 물량 1천대 규모를 'LG' 브랜드로 본격 수출하게 된다. 또한, 유럽 이외 미국, 중동 등 세계 전지역 주요업체들을 대상으로 PDP TV 공급 상담을 벌이고 있어 이번 60인치PDP TV 외에도 36인치, 40인치, 42인치 등의 PDP TV도 대규모공급이 잇달아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연초부터 전개한 사전마케팅(Pre-Marketing)을 통해 세계 유수의 PDP전문 판매업체들과 현지시장에서의 공동 판촉 행사 뿐만아니라 국제공향, 공공안내소(Information Board) 등 공공사업에도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한 바 있어 향후시장 확대 및 수출 확대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본격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PDP TV 시장을 겨냥,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8만 5천대의 PDP TV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최대시장인 북미 지역은 美 자회사인 '제니스' 브랜드를 활용해 적극 공략하는 한편, 유럽 등 다른 지역은 'LG' 브랜드로 수출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LG전자는 PDP TV가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상품이라

세계 최초 60인치 PDP TV 해외시장 본격 출시

LG전자



는 측면에서 마케팅 활동에 한국의 혼이 담긴 사물놀이 등 문화전과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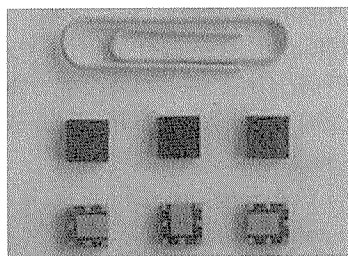
세계 PDP TV 시장은 2005년 최대 700만대의 수요가 예상될 정도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LG전자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LG 전자는 일본의 후지쓰와 함께 PDP TV의 대량 양산 능력을 갖고 있어 당분간 양사가 세계 시장을 양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소형 전력증폭기 모듈 양산

LG이노텍

LG이노텍은 국내 최초로 휴대폰 핵심부품인 초소형스마트 전력증폭기(PA)모듈을 개발, 5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PA모듈은 휴대폰의 멀티기능과 소형화 추세에 부응해 크기가 6×6mm에 불과한 국내 최소형으로 스마트기능을 채택해 전력효율을 30%이상 높임으로써 휴대폰 배터리



사용시간을 크게 늘려주는게 특징이다.

LG이노텍측은 “앞으로 휴대폰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담아내며 소비전력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휴대폰 부품중 소비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PA모듈의 전력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에 부응하는 제품이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 PA모듈”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내년에 스마트 PA모듈에서만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며 이를 위해 북미와 동남아 지역 등에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이노텍은 이번 초소형 스마트 PA모듈에 이어 IMT-2000용 PA모듈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까지는 PA모듈·표면탄성파(SAW)필터·진동모터 등 이동통신용 핵심부품에서 ‘글로벌 톱3’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용량 DSLAM장비 개발

오피콤

네트워크장비 생산업체인 오피콤은 최근 아파트뿐 아니라 소규모 가입자 지역에도 적합한 차세대 소용량 DSLAM장비를 개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ATM 기반의 소용량 DSLAM 장비로 xDSL과 전용선, 일반전화망 등 다양한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오피콤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에 개발된 소용량 DSLAM 장비는 단독 최대 48회선, 랙당 최대 480회선 용량을 지원하며 가입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모듈교체에 의한 기능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경제적이고 유연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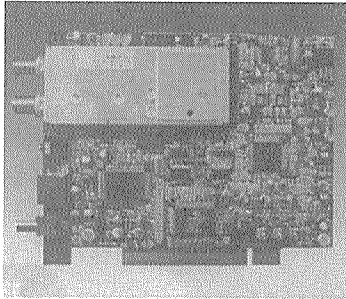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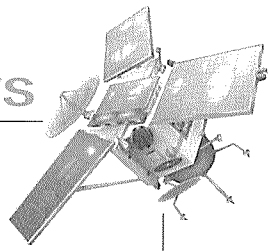
디지털 TV 수신카드 개발

온솔정보통신

디지털 방송장비 전문업체인 온솔정보통신은 1년여의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디지털(ATSC) 및 아날로그(NTSC)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MPEG 방식의 디지털TV 수신카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하드웨어 MPEG 방식의 디지털TV 수신카드가 하드웨어 구성이 복잡해 고가로 공급된 데 비해 소프트웨어 MPEG 디코딩 방식을 채택, 20만원대의 저가 공급이 가능하다.

온솔정보통신 사장은 “올해



안에 유럽 디지털방송 방식인 DVB방식용 수신카드의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국내 디지털방송이 본격화하는 하반기를 겨냥, 내수는 물론 미주 및 유럽 시장 수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KETI와 상용제품 공동 개발

이트로닉스

이트로닉스가 외국업체들이 주도해온 케이블모뎀 사업자 장비인 CMTS(Cable Modem Termination System)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사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과 CMTS를 공동 개발, 최근 테스트를 마치고 상용제품 'VCS-100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VCS-1000은 1000~4000가입자를 지원하고 외산 동급제품에 비해 30% 상당의 가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사후관리

(AS)와 제품 유지보수 측면에서 외산장비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게 이트로닉스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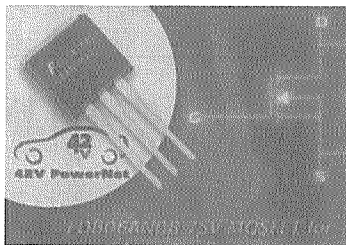
이트로닉스는 오는 8월 VoIP(Voice over IP) 및 라우터 기능을 지원하는 CMTS를 출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등 CMTS분야에서만 올해 150억원, 내년 300억원대를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42V 차량 애플리케이션용 MOS FET 신제품 발표

페어차일드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는 본사에서 42V 차량 애플리케이션용 75V UltraFET Trench MOS FET(모델명 FDB06AN08A1·사진)을 발표했다.

페어차일드는 자사의 특허기술인 트렌치 토폴로지가 사용된 이 제품의 다이 크기가 타 제품보다 20% 이상 작아 각종 장치에 최대 1500A의 시동전류를 일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스타터/얼터네이터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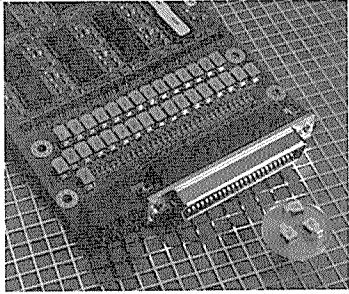
네트워크 보호용 자기복구형 퓨즈 신제품 발표

타이코 레이캡

타이코 레이캡은 네트워크와 통신장비의 과전류 회로 보호용 신제품 TSL250-080 디바이스를 발표했다. 기존 TS250 디바이스들보다 소요표면적이 30% 더 작은 SMD 자기복구형 폴리쉬 위치 TSL250-080 디바이스는 고밀도 포트를 가진 네트워크 카드에 맞게 디자인 되었다. 또한 LAN과 무선로컬루프(WLL: Wireless Local Loops), VoIP 텔레포니와 다른 인프라빌딩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전원이나 과전류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TSL250-080 디바이스는 인트라빌딩과 근거리 통신 시스템의 텔코디아 GR-1089 안전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으로서 GR-1089의 서지(Surge)규격(2/10μs, 800V, 100A)에 강한 대응력을 보여주며 120V와 250V 교류 전원의 오류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을 보유한다. 유지전류를 80mA와 트립전류를 160mA를 갖는 TSL250-080은 과전류 유입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로부터 회로를 보호하여 준다.

본 PPTC (폴리머계열 정온도 계수 소자) TSL250-080디바이스는 SMD(surface-mounted



device) 타입이며 자동화 라인에 적합하도록 테이프와 릴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정확한 라인 밸런스(Line Balance) 정합을 원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하여 저항을 분류한 패키지로도 공급된다.

**휴대폰카드 광지불서비스
솔루션 세계 첫 개발**

하렉스인포텍

하렉스인포텍이 세계 처음으로 개발한 '휴대폰 카드 광지불 서비스(ZOOP) 솔루션'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의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카드아시아' 전시회에 소개돼 주목받았다.

하렉스인포텍의 솔루션이 응용된 서비스는 자판기로부터 휴대폰 카드로 지불된 신용카드 정보를 PDA로 집계해 정산하는 과정으로 고객이 휴대폰 카드를 통해 지불하면 카드 가맹점은 그 자리에서 전자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도 카드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대신 휴대폰 카드로 쓰면 암호화된 신용카드 정보가 PG사에까지 전달돼 결제된다. 이 서비스는 적외선 통신이 가능한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입력해 기존의 신용카드 대신 휴대폰으로 TV리모컨을 사용하듯 휴대폰의 버튼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가 외선으로 전달돼 결제되는 신형 결제서비스의 하나로 버스·지하철 등 교통 시설은 물론 백화점·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상거래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하렉스 인포텍은 지난 4월 4일 국제적외선데이터통신협회(IFDA)로부터 비자·팜 등과 함께 적외선을 이용한 세계금융결제 표준안으로 선정됐다.

하렉스인포텍은 5월부터 국민카드·한국통신프리텔·LG텔레콤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한 후 9월 상용화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카드 제휴사와 함께 일본·홍콩·싱가포르·미국 등 현지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윈도용 NMS 개발

한아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생산업체인 한

아시스템은 최근 윈도용 네트워크관리시스템(NMS)인 '한뷰(Han View)NMT'를 개발, 지난 4월 17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룸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선보인 '한뷰 NMT(Node Management Tool)'는 학내망 및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 TCP/IP와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를 이용해 다양한 LAN 환경에서 '실시간 네트워크 관리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며 노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하고 다양한 장애관리가 가능하다고 한아시스템측은 설명했다.

또 기존 유닉스 기반의 NMS(Network Management System)보다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 50% 이상의 비용절감을 할수 있으며 별도의 전문 네트워크 관리자 없이도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아시스템 사장은 "한뷰 NMT는 NMS의 필수요소인 구성과 장애, 성능, 회계, 유틸리티 등 5가지 기능을 충족하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제품전시회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